

사회적 변화에 따라 결혼적응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져 가고 있다. 원만한 결혼생활과 건강한 가족을 위해서 부부간에 잘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동일한 갈등상황이라도 부부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인지하는 정도, 갈등을 대처하는 방법 등에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부부가 각각 자신의 욕구, 가치, 태도, 믿음에 따라 상황과 사실을 다르게 인지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차이는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며 성장해 가는데 중요한 기제가 되는 개인의 자아분화 정도에 따라 다르다(이현주, 1997; 한미향, 2000).

2004년 3월 10일에 발표된 “2003년도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의 상담통계 개요”에서는 이혼상담비율이 남성(14.1%)보다 여성(85.9%)이 6배 이상 많다고 보도하고 있다(한국 가정법률 상담소, 2004). 또한 결혼 지속 년 수에 따라 남편의 결혼적응도는 증가하지만, 아내의 결혼적응도는 감소한다(Adams, 1980)는 연구결과는 남성보다 여성이 결혼적응에 대한 문제를 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03년 전국 가족 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여성부 정책 1 담당관실)의 자료는 부부간 갈등이 있을 때에 부부 둘 다 이혼을 찬성하는 경우가 15.3%인 반면에, 부부 둘 다 이혼을 반대하는 경우가 42.7%로 나타나, 비록 부부 간에 갈등을 겪는다 해도 이혼을 하기 보다는 갈등을 극복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부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부부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결혼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혼적응(marital adjustment)은 가족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될 뿐 아니라 자주 다루어지는 연구 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이민식, 김중술, 1996; Spanier & Filsinger, 1983). 1929년 미국의 Hamilton을 효시로 많은 연구자들(Benard, 1993; Burgess & Cottrell, 1939; Burgess & Wallin, 1953)이 나름대로 결혼 적응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한편,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노력해왔다. 결혼적응은 “조화롭고 기능적인 부부관계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하였고(Spanier, 1976), “안정되고 조화로운 가족생활을 위해서 부부 상호간의 끊임없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도 하였다(김양희, 박정윤, 최유경, 2003). 잘 적응하는 부부는 배우자가 서로 자주 상호작용하고 중요한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 거의 불일치가 없으며 솔직하게 서로에 대해 대화하며 또한 서로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불일치를 해결한다(Spanier, 1976). Spanier는 결혼적응이라는 개념은 질적으로 다른 ‘상태(state)’를 의미하는 적응적 혹은 부적응적 부부관계라는 식의 이분법적 구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적응과 부적응 사이의 연속선상에서 어느 한 횡단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며, 종단적으로는 얼마든지 변화의 가능성을 지니는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결혼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 중 자아분화는 개인의 성장초기에 가족원과의 관계, 특히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발달하며 성장 후 그들의 생활과 가족과의 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개념이다. Bowen 가족체계이론의 핵심이 되는 개념인 자아분화는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 뿐 아니라, 정서적 성숙과 자기가 태어난 가정으로부터 개별화된 정도를 의미한다(제석봉, 1989; Kear, 1978). 인간은 유기체로서 개성

화와 동질화라는 두 가지 욕구를 동시에 가진다. 개성화는 자신의 의지에 따르고 독립적이며 개별적인 실체로 존재하고자 하는 욕구이며, 동질화는 다른 사람의 의지에 따르고 의존적이며 타인과 공동체로서 존재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개인이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들 두 욕구 간의 배분을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자아분화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Kerr & Bowen, 1988). 이러한 욕구에 따라 자아분화는 기본분화와 기능분화로 나누어지는데, 기본분화(basic differentiation)는 일반적으로 부모가족의 감정적 장에서의 융합의 정도를 말하지만 다른 감정적 과정에서 기본적인 혹은 지속적인 융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 가족의 감정적 장에서 융합이 일어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나 스포츠, 사회운동, 취미 등 비가족적인 것에 융합되기도 한다(최연실 역, 1995). 이러한 기본분화는 어린 시절에 형성된 자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한번 일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면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다. 이처럼 어린 시절에 이미 진정한 자신을 많이 형성하고 있으면 자아는 시간에 따라서 잘 변화하지 않으며, 자신이 세운 목표에 따라서 꾸준히 행동하고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한편, 기능분화(functional differentiation)는 개인이 가족원과의 특정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얼마나 분화되는가를 말한다. 평상시 침착하고 냉정하며 정돈된 성격의 사람들조차도 몹시 긴장된 감정적 상황에서는 침착성을 상실하고 가족원들과 융합될 수 있다(최연실 역, 1995). 기능분화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인이 얼마나 주어진 목표활동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념을 의미한다.

이처럼 자아분화는 정신 내적 측면과 대인 관계에 관련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정신 내적 측면에서의 자아분화는 지적 기능이 정서적 기능으로부터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감정과 사고를 분리시키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사고와 감정 사이에 균형을 이룰 수 있으며 자제력이 있고 객관적인 반면, 자아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자율성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과 융해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대인관계 측면에서 볼 때,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은 확고한 자아를 발달시키지 못하고 거짓 자아가 발달하게 되므로 자신의 일관된 신념을 가지고 자주적이며 독립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김유숙, 1998). 이렇듯 자아분화란 문제해결능력, 적응력 등과 관련되는 중요한 변인이다(조은경, 2001).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독립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생활하며 갈등에 직면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비해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의존적이고, 긴장이나 갈등을 야기 시키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결혼생활에서도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경우 배우자들 간에 정서적 거리감이 생기고 한 배우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역기능 증상이 나타나며, 결혼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정서적 이혼 상태에까지 도달하게 됨으로서 부부의 결혼적응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Bowen, 1976). 이렇듯 자아분화와 결혼적응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를 뒷받침해주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있다(김영일, 2006; 조은정, 정혜정, 2002; Bowen, 1988; Reifman, 1986; Mee-Gaik & Jennings, 1996; Skowron, 2000). 몇

몇 연구들을 살펴보면, Bowen(1988)은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생활의 만족도가 높으며,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부부관계에서 적응문제가 많음을 발견했다. 또한 Reifman(1986)은 정서적 단절을 심하게 경험할수록 부부관계에서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함을 밝혔으며, Mee-Gaik(1991)는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부부들이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친밀감을 누리고 결혼생활에 더 만족해하는 반면,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부부들은 결혼생활에서 스트레스와 갈등을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Mee-Gaik과 Jennings(1996)의 연구에서도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으며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결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살펴보면, 자아분화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친밀성과 만족감, 상호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자아분화와 결혼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상당수 있으나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의 ‘과정’을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즉,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결혼적응을 잘 하게 되는지, 반대로 자아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결혼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 과정 변인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상징하여 보았다.

Bowen에 따르면 개인에게 나타나는 부적응 행동이나 증상은 자아가 분화되지 못한 데서 기인하며 우울 또한 자아의 미분화에서 오는 부 적응적 반응이라고 한다. 자아분화수준이 낮은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묶여 있어서 서로에 대해 민감하고

예민하며, 작은 불안에도 관계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더욱 더 관계에 집착하고 상대방에게 매달리는 의존행동을 보인다. 이들은 지적인 힘에 의해 사고하고 행동하기보다 감정에 의한 감정반사행동을 나타내며 삶의 목표도 안정적인 관계지향이다(Kerr & Bowen 1988). 또한, 가족 성원들이 각자 “미분화된 가족 자아”에서 분화되지 못하고 융합되어 있으면, 가족 각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정서의 지배를 받고, 대인관계에서 충동적 행동화(acting out)가 일어나며, 가족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개인에게 필요한 변화에의 자유를 손상시킨다(Vander Kooi, 1984). 관계 안에서의 이러한 자아의 끊임없는 노력과 불안은 자아를 위축시키고 더욱 의존적으로 만들어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우울이 나타나게 된다.

이원옥(2003)은 자아분화 수준이 보통인 사람들이 비교적 낮은 수준의 자아분화를 가진 사람보다 낮은 우울감을 나타내었음을 발견하였고, 제석봉(1989)은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역기능적 행동을 보다 덜 한다는 것을 밝혔다. Garfinkel(1980)이나 Elieson과 Rubin(2001)도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더 많은 우울감을 보인다고 하였고, 임상적으로 우울한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보다 낮은 자아분화 수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한편, Greene, Hamilton 및 Rolling(1986)은 자아분화 수준과 알코올 중독, 정신분열증, 우울 반응, 성격장애 등 DSM - III(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 III)를 바탕으로 한 여섯 개 군의 정신장애 집단의 자아분화수준이 정상적인 통제집단의 자아분화 수준보다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자아분화와 우울 간에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우울과 결혼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도 많은 연관

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혼성인을 대상으로 한 우울증에 관한 일련의 경험적 연구들에서 결혼불화와 우울증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 남성들보다 우울이나 염려 같은 내적으로 향한 부정적 감정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표현한다는 점은 입증된 사실이다(Nolen-Hoeksema & Rusting, 1999). 예를 들어, 우울증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들의 절반은 결혼생활에서 현저한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ounsaville, Weissman, Prusoff, & Herceg-Baron, 1979), 557명의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한 Beach, Harwood, Horan, Katz, Blum 및 Roman(1996)의 연구에서는 첫 조사에서의 우울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통제된 상태에서도 조사 1년 후 우울과 결혼 만족도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 Goering, Lancee와 Freeman(1992) 또한 우울증이 지속되는데 있어서도 결혼 생활의 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47명의 주요우울증 진단을 받은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남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와 퇴원 후 증상 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피험자 51%가 6개월 이후 우울증에서 회복되었는데, 회복을 예측한 변인은 피험자가 평가한 현재 결혼 생활 관계와 남편의 표현된 비판인 것으로 나타났다. Monore, Bromet, Connell과 Steiner(1986)는 현재 우울 증상이 없고, 결혼생활에 불화가 없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1년 후에 우울 수준을 조사한 결과, 우울수준이 낮을수록 결혼생활에서 더 많은 지지를 지각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자아분화, 우울, 결혼적응과의 관련성을 토대로 하여 기혼여성들의 자아분화와 우울 및 결혼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아

분화와 결혼적응과의 관계에서 우울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주부갈등의 해소와 성장을 위한 실제적인 상담 연구는 상당히 미진한 상태이며, 가족의 안정과 역동성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기혼여성의 자아분화에 대한 선행연구(전춘애, 1993; 김희수, 1993)는 있지만, 자아분화 수준과 결혼적응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자아분화 및 결혼적응과 관련지어 이론적, 실질적인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자아분화는 우울, 결혼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2. 자아분화와 결혼적응과의 관계에서 우울이 매개역할을 하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경북과 충북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속도대로 질문지를 읽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질문지를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정도였다. 총 390부의 설문지를 배부해서 367부의 자료를 수거했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고 353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령대별 분포는 이후 결과에 제시하였다.

측정도구

자아분화 척도

Bowen의 자아분화척도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제작한 제석봉(1989)의 자아분화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자아분화 수준을 다섯 가지 하위척도로 나누었으며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아주 그렇다'(4점)의 Likert 식 4단계 평정법으로 하였다.

하위척도는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의 통합,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가 잘 되어있음을 뜻한다. 하위변인 중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은 점수가 높으면 그만큼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수준이 낮아서 자아분화가 잘 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분화 척도의 5개 하위영역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은 사려성과 자기감정의 통제 능력 등의 분화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과 충동성, 합리화, 약물남용과 같은 불안 경감을 주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융합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의 자아분화수준이 높다는 것은 정서적인 통제와 더불어 인지적 수준의 자기분화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자아 통합은 개인이 관계체제 또는 타인이나 상황으로부터 정서적인 압력을 받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의 신념과 생활원리를 잘 견지하고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가족투사과정은 어릴 때부터 투사의 가능성이 높은 자녀 간의 의사 거래 유형과 투사하기 쉬운 자녀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근심 등의 부모의 특질을 묻는 문항과 과거에서부터 부모가 표명했던 근심과 현재상태의 일치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정서적 단절로서, 정서적 단절의 정도를 재기 위해 부모에 대해 애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

한 부정이나 고립 등의 정신내적 기제의 사용, 부모에 대한 반항, 가출의 욕구를 통한 정서적 거리, 위장된 독립성 등을 재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째, 가족퇴행으로서, 가정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족 구성원들이 여기에 대처해 나가는 방법,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처리방법이나 폭력 등의 유무, 자기 책임을 회피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행위,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가족 구성원들의 동질화 추구 경향, 가정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 삼자의 삼각화 경향, 가정바깥에서의 성 문제, 기타 가족 구성원간의 역기능적인 의사거래유형 등 가족 성원들의 퇴행적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이들 자아분화 하위 척도의 점수가 높은 것은 각 하위변인 별로 자아분화가 더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자아분화 신뢰도는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Cronbach's $\alpha = .66$, 자아의 통합 Cronbach's $\alpha = .53$, 가족투사 Cronbach's $\alpha = .78$, 정서적 단절 Cronbach's $\alpha = .68$, 가족퇴행 Cronbach's $\alpha = .82$ 로 나타났다.

결혼적응 척도

피험자들의 결혼생활 적응 및 안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panier(1976)가 개발한(Dyadic Adjustment Scale)의 우리말 번역본인 '부부관계 적응척도'(DAS)를 사용했다(이민식, 김중술, 1995). 이 척도는 결혼적응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어 왔다(권정혜, 채규만, 2000; 정석희, 1992; 진길량, 1998; 지혜정, 2002). Spanier(1976)는 이 검사지를 만들면서 1) 일상생활에서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부부간의 의견일치도(Dyadic Consensus) 2) 관계에 대한 만족(Dyadic

Satisfaction: 현재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3) 부부가 어떤 활동에 같이 참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응집력(Dyadic Cohesion) 4) 애정표현과 성생활의 만족에 대한 애정표현(Affectional Expression) 등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개의 하위척도로 나누어 결혼적응을 측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DAS에서 산출된 전체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결혼 적응도(Marital Adjustment) 점수와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위 4개의 하위척도 각각의 점수 합을 모두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결혼적응 하위변인 각각의 신뢰도는 부부 의견일치 Cronbach's $\alpha = .92$, 관계에 대한 만족 Cronbach's $\alpha = .81$, 응집력 Cronbach's $\alpha = .87$, 애정표현 Cronbach's $\alpha = .76$ 으로 나타났다.

우울척도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경구와 이민규(1992)가 번안한 한국판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사용하였다. CES-D는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우울증상을 보다 용이하게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서, 이 척도는 긍정적인 문항이 4개, 부정적인 문항이 16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의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긍정적인 문항에서는 역산처리 하였으며,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더욱 더 우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우울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8$ 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방법

자아분화, 결혼적응, 우울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아분화가 우울, 희망, 결혼적응을 얼마나 유의하게 설명해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stepwise) 투입방법을 활용한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자아분화와 결혼적응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5.0을 사용하여 공변량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 방정식 모형 부합도 지수로 χ^2 값과 기초부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수정 기초 부합지수(Adjusted Good of Fit Index: AGFI), 원소 간 근접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비교 부합 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 증분부합 지수(Incremental Fit of Index: IFI), 간명성 부합치(Parsimony Goodness of Fit Index)를 사용하였다. 모수에 대한 추정 방식으로는 모집단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이룰 때 사용하는 추정방법인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or)을 선택하였다. 또한 분석에 앞서, 자료가 정규분포의 가정을 따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정규분포 가정이 심하게 위배된 경우, 최대우도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완전정보 최대우도법에서도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Curran, West, & Finch, 1996). 각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따르는지를 보기 위해 첨도(kurtosis)와 왜도(skewness)를 살펴보았다. West, Finch와 Curran (1995)이 제시한 정규분포의 기준(skew > 2; kurtosis > 7)의 경우는 심한 비정규분포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는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표 1. 연령대별 수와 결혼지속 년 수

| 연령대 | 21~30 | 31~40 | 41~50 | 51~60 | 60세 이상 | 계(%) | |
|------|---------------|-----------------|-----------------|-----------------|----------------|----------------|----------------|
| | 23명 (7.4%) | 122명 (34.5%) | 144명 (40.6%) | 51명 (14.4%) | 10명 (3.0%) | 353명 (100%) | |
| 결혼기간 | 3년 미만 | 3~5년 | 6~10년 | 11~20년 | 21~30년 | 31년 이상 | 계(%) |
| | 21명 (5.9%) | 13명 (3.7%) | 59명 (16.7%) | 135명 (38.2%) | 94명 (26.6%) | 30명 (8.5%) | 353명 (100%) |

연령대별로는 41~50세가 144명(40.6%), 31~40세가 122명(34.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결혼기간은 11~20년이 135명(38.2%), 21~30년이 94명(26.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자아분화, 우울과 결혼적응과의 상관관계

자아분화의 하위변인인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의 통합,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과 우울, 결혼적응의 하위변인인 부부의견일치, 부부응집력, 부부관계만족, 부부애정표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측정된 변인들 간의 Pearson 적률상관 계수를 산출하였고 이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를 볼 때, 자아분화의 하위변인인 자아통합을 제외한 하위변인 모두 결혼적응 하위변인들과 대체로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고, 우울은 결혼적응과 대체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질수록, 우울이 낮을수록 대체로 결혼적응을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자아분화 · 결혼적응 · 우울 하위변인의 상관계수(r) (N=353)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1.인지정서 | 1.0 | | | | | | | | |
| 2.자아통합 | .01 | 1.0 | | | | | | | |
| 자아분화 | 3.가족투사 | .36*** | -.10 | 1.0 | | | | | |
| | 4.정서단절 | .20*** | .22* | .25*** | 1.0 | | | | |
| | 5.가족퇴행 | .20*** | .04 | .17** | .49*** | 1.0 | | | |
| | 6.의견일치 | .21*** | .05 | .17** | .14** | .12* | 1.0 | | |
| 결혼적응 | 7.응집력 | .23*** | .10 | .15** | -.18** | -.12* | .58*** | 1.0 | |
| | 8.관계만족 | .20*** | .01 | .22*** | .16** | .13* | .54*** | .53*** | 1.0 |
| | 9.애정표현 | .21*** | .01 | .29*** | .20*** | .12* | .66*** | .48*** | .53*** |
| 10.우울 | -.25*** | -.01 | -.26*** | -.11** | -.12** | -.27*** | -.17*** | -.33*** | -.22*** |

*p < .05, **p < .01, ***p < .001

자아분화와 결혼적응과의 관계

자아분화 하위변인을 예언변수로 설정하고 결혼적응 하위변인을 준거변수로 설정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결혼적응의 하위변인인 부부의견일치를 상대적으로 잘 설명하는 변인들은 자아분화의 하위차원인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정서적 단절의 순서로 나타났고 부부의견일치에 대한 이들 변인들의 총 설명량은 4.9%였다. 각 변인별로 살펴보면, 부부의견일치에 대해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은 3.8%, 정서적 단절은 1.1%를 설명하였다.

즉, 다른 변인의 영향이 통제되었을 때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정서적 단절이 부부의견일치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결혼적응의 하위변인인 부부응집력을 상대적으로 잘 설명하는 변인들은 자아분화의 하위차원인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통합, 정서적 단절의 순서로 나타났고 부부응집력에 대한 이들 변인들의 총 설명량은 10.9%였다. 각 변인별로 살펴보면, 부부응집력에 대해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은 5.7%, 자아통합은 2.8%, 정서적 단절은 2.4%를 설명하였다. 즉, 다른 변인의 영향이 통제되었을

표 3. 자아분화와 결혼적응 간 중다회귀분석

| 종속변인 | 변인 | 비표준화 회귀계수 | | 표준화 회귀계수 | t | R ² | F |
|------------|-------|-----------|-----------|----------|--------|----------------|--|
| | | B | Std.Error | Beta | | | |
| 부부 의견일치 | 인지정서 | .40 | .13 | .17 | 3.22** | .038 | F(1, 351)=16.23*** F(2, 350)= 3.98* |
| | 정서단절 | .19 | .09 | -.11 | 2.08* | .011 | |
| | 총 설명량 | | | | | .049 | |
| 부부 응집력 | 인지정서 | .59 | .15 | .21 | .21*** | .057 | F(1, 351)=19.79*** F(2, 350)=11.60** F(3, 349)= 7.98** |
| | 자아통합 | .54 | .16 | .18 | .18** | .028 | |
| | 정서단절 | .33 | .11 | .16 | .16** | .024 | |
| | 총 설명량 | | | | | .109 | |
| 부부 관계만족 | 가족투사 | .23 | .08 | .17 | 3.10** | .049 | F(1, 351)=17.93*** F(2, 350)= 5.80* |
| | 인지정서 | .25 | .10 | .13 | 2.41* | .015 | |
| | 총 설명량 | | | | | .064 | |
| 부부 애정표현 | 가족투사 | .23 | .08 | .17 | 3.00** | .059 | F(1, 351)=19.25*** F(2, 350)= 8.33** F(3, 349)= 5.55* |
| | 인지정서 | .25 | .11 | .13 | 2.37* | .018 | |
| | 정서단절 | .16 | .08 | .11 | 2.12* | .012 | |
| | 총 설명량 | | | | | .089 | |

* p < .05, ** p < .01, ***p < .001

때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통합, 정서적 단절이 부부의견일치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결혼적응의 하위변인인 부부관계만족을 상대적으로 잘 설명하는 변인들은 자아분화의 하위차원인 가족투사,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의 순서로 나타났고 부부관계만족에 대한 이들 변인들의 총 설명량은 6.4%였다. 각 변인별로 살펴보면, 부부관계만족에 대해 가족투사는 4.9%,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은 1.5%를 설명하였다.

결혼적응의 하위변인인 부부애정표현을 상대적으로 잘 설명하는 변인들은 자아분화의 하위차원인 가족투사,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정서적 단절의 순서로 나타났고 부부애정표현에 대한 이들 변인들의 총 설명량은 8.9%였다. 각 변인별로 살펴보면, 부부애정표현에 대해 가족투사는 5.9%,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은 1.8%, 정서적 단절은 1.2%를 설명하였다. 즉, 다른 변인의 영향이 통제되었을 때 가족투사,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정서적 단절은 부부애정표현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각 결혼적응 하위변인에 공통적으로 자아분화 하위변인인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고, 정서적 단절 또한 대부분의 결혼적응 하위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자아분화와 우울과의 관계

자아분화 하위변인을 예언변수로 설정하고 우울을 준거변수로 설정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우울을 상대적으로 잘 설명하는 변인들은 자아분화의 하위차원인 가족투사,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의 순서로 나타났고 우울에 대한 이들 변인들의 총 설명량은 9.5%였다. 각 변인별로 살펴보면, 우울에 대해 가족투사는 6.7%,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은 2.8%를 설명하였다. 즉, 다른 변인의 영향이 통제되었을 때 가족투사,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은 우울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자아분화, 우울과 결혼적응 간의 관계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자아분화와 결혼적응에 대한 우울의 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고, 경합모형

표 4. 자아분화와 우울 간 중다회귀분석

| 종속변인 | 변인 | 비표준화 회귀계수 | | 표준화 회귀계수 | t | R ² | F |
|------|-------|-----------|-----------|----------|----------|----------------|--------------------|
| | | B | Std.Error | Beta | | | |
| 우울 | 가족투사 | -2.44 | .68 | -.20 | -3.57*** | .067 | F(1, 351)=25.39*** |
| | 인지정서 | -3.08 | .94 | -.18 | -3.27** | .028 | F(2, 350)=10.69** |
| | 총 설명량 | | | | | .095 | |

* p < .05, ** p < .01, ***p < .001

으로 결혼적응에 대한 자아분화와 우울의 단순가산모형을 설정하여 두 가지 모델을 비교하였다(그림 1). 자아분화라는 잠재변인은 자아통합,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의 5가지 측정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울은 한 가지 측정변인으로, 결혼적응은 의견일치, 응집력, 관계만족, 애정표현의 4가지 측정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고 경합모형으로 단순가산모형을 설정하여 두 가지 매개모형을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연구모형과 경합모형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를 보면, 절대 적합도 지수인 χ^2 값이 각각 77.506과 109.215로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검증량이 표본크기에 민감하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교 적합도 지수인 GFI,

AGFI, CFI, IFI, PFI, RMSEA를 이용하여 해석한 결과, 부합도 지수들이 대체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경합모형에 비해 연구모형의 부합도 지수들이 더 양호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두 모형 간 χ^2 값의 차이 또한 21.709로 자유도 1일 때의 임계값인 3.8보다 커,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즉, 경합모형인 단순가산모델보다는 부분매개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림 2에 제시된 자아분화와 결혼적응의 관계에 있어서 우울의 매개모형 경로 추정치를 살펴보면, 자아분화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는 $-.39(p < .001)$, 우울에서 결혼적응으로 가는 경로는 $-.18(p < .001)$ 이며 자아분화에서 결혼적응으로 가는 경로는 $.36(p < .001)$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분매개모형상의 자아분화 → 우울($b = .25, SE = .06$)과 우울 → 결혼적응($b = -.11, SE = .02$)의 매개효과 유의도 검증을 위하여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 2.55,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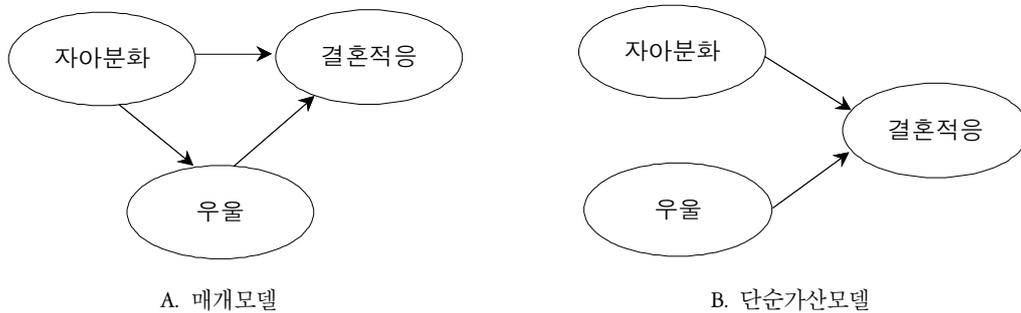


그림 1. 자아분화, 우울, 결혼적응간의 경로관계

표 5 구조모형의 적합도(연구모형과 경합모형)

| | χ^2 | df | p | GFI | AGFI | CFI | PFI | IFI | RMSEA |
|------|----------|----|------|------|------|------|------|------|-------|
| 연구모형 | 77.506 | 30 | .000 | .962 | .923 | .943 | .868 | .944 | .067 |
| 경합모형 | 109.215 | 31 | .000 | .946 | .904 | .946 | .820 | .908 | .085 |
| 차이 | 21.709 | 1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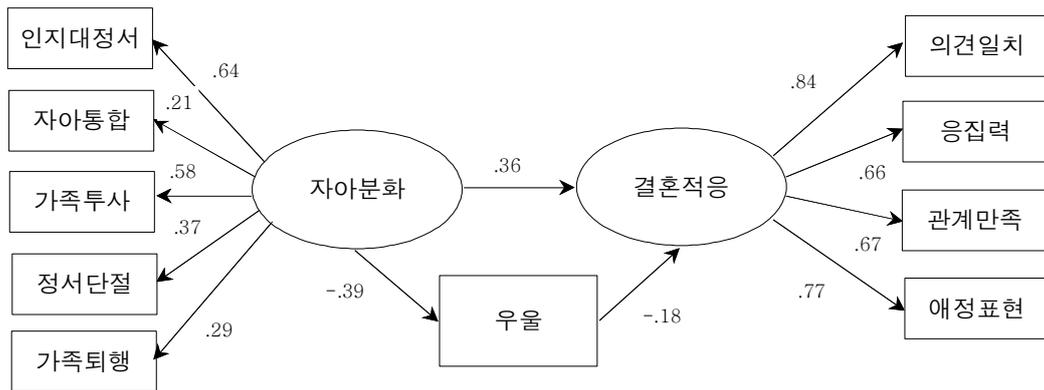


그림 2. 자아분화와 결혼적응의 관계에서의 우울의 매개모델

논 의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결혼적응과 관련성을 보이는 자아분화와 우울을 상정하여 이들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자아분화와 결혼적응과의 관계에서 우울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할 뿐 아니라, 자아분화와 결혼적응 간의 과정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결과 첫째, 각 결혼적응 하위변인에 공통적으로 자아분화 하위변인인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의 인지적 기능이 높을수록 결혼적응의 하위차원 즉, 부부 의견일치, 부부 응집력, 부부 관계만족, 부부 애정표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결혼적응 문제를 상담할 때 상담자는 이들 내담자에게 공통적으로 자아분화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정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인지적 체제가 정서적인 체제보다 더 많이 작동하는 경우에는 분화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Bowen(1972)은 인간의 행동과 사고를 조정하는 것은 곧 개인의 지적 능력이라 하였으며 사고의 기능을 높일 때 분화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즉,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할 수 있어야 지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의 정도가 늘어날수록 개인이 목표지향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김용태, 2000). 내담자의 지적체계가 분화되어 있지 않아 주로 정서적 체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경우, 예를 들면 말부터 해놓고 나중에 그 말을 후회한다든가,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동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담자는 그들의 행동과 감정 특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며, 내담자의 감정조절을 지적인 수준에서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상담과정에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아분화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다른 변인의 영향력이 통제되었을 때,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이 우울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

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우울 수준이 낮은 반면,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우울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이원옥, 2003; Elieson & Rubin, 2001; Greene, Hamilton & Rolling, 1986)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분화의 하위요인을 살펴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은 결혼적응은 물론 우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의 인지적 기능을 고려하여 내담자가 정서적 체계의 지배를 더 많이 받을 경우에 자신의 감정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도록 도와주고 지적인 수준에서 적절하게 감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울은 물론 결혼적응을 높이는 데도 중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모형 검증에서 자아분화와 결혼적응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우울의 부분 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 이는 자아분화가 결혼적응에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질수록 결혼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질 경우에 우울수준을 낮추어 이로 인해 결혼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아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자율성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과 융해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대인관계 측면에서 볼 때,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은 확고한 자아를 발달시키지 못하고 거짓 자아가 발달하게 되므로 자신의 일관된 신념을 가지고 자주적이며 독립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김유숙,

1998). Bowen은 개인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부적응 행동이나 증상은 자아가 분화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며 우울 또한 미분화에서 오는 부적응적 반응이라고 보았다. 자아분화수준이 낮은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묶여 있어서 서로에 대해 민감하고 예민하며, 작은 불안에도 관계가 무너지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더욱 더 관계에 밀착하고 상대방에게 매달리는 의존행동을 보이게 된다. 이들은 지적인 힘에 의해 사고하고 행동하기보다 감정에 의한 감정반사행동을 나타내며, 관계 체제의 유지에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는 식의 삶의 목표를 갖는다(Kerr & Bowen, 1988). 또한, 가족 성원들이 각자 “미분화된 가족 자아”에서 분화되지 못하고 융합되어 있으면, 가족 각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정서의 지배를 받고, 대인관계에서 충동적 행동화(acting out)가 일어나며, 가족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개인에게 필요한 변화에의 자유를 손상시킨다(Vander Kooi, 1984). 관계 안에서의 자아의 끊임없는 노력과 불안은 자아를 위축시키고 더욱 의존적으로 만들어 좌절감을 느끼게 되며, 이로 인해 결국 우울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우울은 결국 결혼생활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보다 나은 결혼생활의 적응을 위해 자아분화 수준을 살펴보고 이러한 분화수준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울수준이 높아지는 과정을 통해 결혼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우울수준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자아분화, 우울, 결혼적응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아분화와 결혼적응의 관계에서 우울의 역할을 살펴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남성들에 비해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개인적 성장을 제한받는 주부들의 문제들은 가족 내의 갈등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주부 자신의 정신적 건강 및 자녀의 인성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박수선, 1996).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기혼여성의 결혼적응에 몇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결혼적응에 영향 미치는 자아분화의 하위차원과 우울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자아분화를 높일 수 있는 세부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보았으며, 자아분화와 결혼적응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정서적 변인인 우울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심리치료의 모델에 이러한 연구결과를 적용한다면 자아분화의 경감 및 이에 영향 미치는 우울에 대한 이해를 통해 결혼생활 적응에 보다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연구의 대상은 20대에서 60대까지의 기혼여성으로 연령별 분포가 넓게 나타나 연령 별로 이들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없었다. 추후연구에서는 이러한 연령별 차이 뿐 아니라 종교, 생활수준, 학력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혼적응에 있어서의 차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울을 줄일 수 있는 인지치료 혹은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아분화 가운데에서도 우울과 결혼적응에 중요한 관련성을 나타낸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의 분화수

준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더 요망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의 대상들 개개인이 고유하게 지닌 전반적인 긍정/부정 정서가 여러 변인들 사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개인의 만성적인 우울경향성 등의 성격적 특성이 사전에 통제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결과의 전반적인 해석시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양희, 박정운, 최유경 (2003). 기혼남녀의 스트레스 지각,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생활과학 논집, Vol. 18, 49-63.
- 김영일 (2006). 성인 애착과 결혼만족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조절효과.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태 (2000). 가족치료 이론. 학지사.
- 김유숙 (1998).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학지사.
- 김희수 (1993).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결혼 만족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정혜·채규만 (2000). 부부적응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2), 207-218.
- 박수선 (1996).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자아분화 수준과 결혼 만족도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민식, 김중술 (1995). 부부관계 적응 척도 (Dyadic Adjustment Scale)의 표준화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 '95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91-299.
- 이원옥 (2003). 가족체계 유형과 미혼성인의 자

- 이분화, 우울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 (1997). 부부의 자아분화 정도와 갈등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전경구, 이민규 (1992). 한국판 CES-D 개발연구 1.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1(1), 165-176.
- 전길량 (1988). 자기개발과 부부적응에 관한 상관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춘애 (1993).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지각이 결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석희 (1992). 부부관계증진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이 부부의사소통과 부부적응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지혜정 (2002).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심리 사회적 요인의 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제석봉 (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은경 (2001).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과 갈등대처 행동 및 결혼 적응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은정, 정혜정 (2002). 기혼 남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갈등대처행동 및 결혼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20(1), 1-16.
- 최연실 역 (1995). 새로 보는 가족관계학. 하우.
- 한미향 (2000). 부부의 자아분화와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방안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dams, B. N. (1980). *The family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3rd ed). Chicago: Rand McNally Publishing Co.
- Benard, J. (1933). An instrument for measurement of success in marriage. *Publication of American Sociological Society*, 27, 94-106.
- Bowen, M. (1972). On the differentiation of self. In D. Jackson (Eds). *In family interaction: A dialogue between family researchers and family therapists*.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 Bowen, M. (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 J. Guerin (Eds.). *Family Therapy*, New York: Gardner Press.
- Burgess, E. W., & Cottrell, L. S. (1939). *Predicting success or failure in marriage*. New York: Prentice-Hall.
- Burgess, E. W., & Wallin, P. (1953). *Engagement and marriage*, Lippinott(Chicago).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 16-29.
- Elieson, M. V., & Rubin, L. J. (2001). Differentiation of self and major depressive disorders: A test of Bowen theory. *Family therapy*, 28, 125-142.
- Garfinkel, H. N. (1980). *Family system personality profile: An assessment instrument based on Bowen the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 Goering, P. N., Lancee, W. J., & Freeman, S. J. (1992). Marital support and recovery from depressio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0, 76-82.
- Greene, G. J., Hamilton, N., & Rolling, M. (1986). Differentiation of self and psychiatric

- diagnosis: An empirical study. *Family Process*, 13, 187-196.
- Kear, J. (1978). *Marital satisfaction and attraction as a function of differentiation of self*,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of Psychology, Fresno Campus.
- Kerr, M. E., & M. Bowen. (1988). *Family Evaluatio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Mee-Gaik, Ng. (1991). *Family of origin differenti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in healthy like, healthy unlike, unhealthy like, unhealthy unlik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 Mee-Gaik, Lim., & Jennings, G. H. (1996). Marital satisfaction of healthy differentiated and undifferentiated couples.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4(4), 308-315.
- Monore, S. M., Bromet, E. G., Connell, M. M., & Steiner, S. C. (1986). Social support, life events and depressive symptoms: A one year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903-908.
- Nolen-Hoeksema, S., & Rusting, C. L. (1999). Gender differences in well-being. In D. Kahneman, E. Diener, & N. Schwarz (Eds.),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pp. 330-352).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Reifman, A. (1986). *Emotional cutoff and the qualities of intimate relationshi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
- Rounsaville, B. J., Weissman, M. M., Prusoff, B. A., & Herceg-Baron, R. L. (1979). Marital disputes and treatment outcome in depressed women. *Comprehensive Psychiatry*, 20, 483-490.
- Skowron, E. A. (2000). The role of differentiation of self in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229-237.
- Spanier, G. B.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15-28.
- Spanier, G. B., & Filsinger, E. E. (1983). The dyadic adjustment scale. In E. E. Filsinger (Eds.). *Marriage and Family Assessment*. Beverly Hills Sage Pub. Inc.
- Vander Kooi, I. K., & Handelsman, M. M. (1984). Toward an integration of Jungian and Bowen perspectives on psychotherapy, *Family therapy*, 6(3). 217-227.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 (Ed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56-75. Newbury Park, CA: Sage.
- 1 차원고접수 : 2007. 11. 11.
심사통과접수 : 2007. 12. 29.
최종원고접수 : 2007. 12. 30.

The Relationship of Differentiation of Self and Marital Adjustment: The Mediator Effects of Depression

Myung-Ok Lee

Jung-Hee Ha

Chung-Buk University

This study performed to inspect the relationship of differentiation of self, depression, marital adjustment, to find the mediational effect of depression in the relation between differentiation of self and marital adjustment. That is, if there is more differentiation of self, then depression might decrease, and hope would increase, which might be helpful to marital adjustment. The participants were 353 married women. The significant results were revealed as follows : Firstly, we found that cognitive function vs. emotional function, a commonly identified sub dimension of differentiation of self, influences each sub variation of marital adjustment. Secondly, we found that, when another dimension is controlled, as sub variation of differentiation of self, family projection, and cognitive function vs. emotional function significantly predicts depression. Thirdly, we found that depression has a role in medi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iation of self and marital adjustment. This study is meaningful as we examined the process that differentiation of self affect marital adjustment. Comprehension of this process has the potential to help the adjustment of people who have insufficient differentiation of self.

Key words : differentiation of self, depression, marital adjustment